사료값 뛰고 소값 떨어지고…牛울한 축산 농가

사료값 2년간 kg당 146원 올라 마리당 사육비 93만원 늘어
소값 두자릿수 하락…당국, 6월까지 암소 2만마리 감축키로

통계청 '2021축산물 생산비 조사'

대를 이어 한우 3200마리 규모 영암 정수농장을 운영하는 김형민 대표는 지난 16년 간 소를 키울 동안 지금처럼 사룟값이 뛴 적은 없었다고 말했다. 사료 가격이 2년여 동안 4차례 오르면서 한 마리당 100만원 가량 사육비가 더 들게 됐고 다음 달에도 인상 소식이 들리고 있어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다.

25일 농협 전남지역본부와 광주축산농협에 따르면 한우·젖소용 배합사료 가격은 지난 2020년 들어 모두 네 차례에 걸쳐 kg당 146원 올랐다.

kg당 사료 가격은 지난 2020년 5월 20원 오른 뒤 지난해 3월 42원, 같은 해 8월 41원, 올해 3월 43원 등이 인상됐다. 농협이 생산하지 않은 일반 사료 가격도 올해만 1월, 3월, 5월에 걸쳐 세 차례 인상됐다.

이같은 사룟값 인상은 지난 2020년부터 지속한 홍수·폭염·가뭄 등 이상기후와 코로나19 대유행,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인한 곡물 수출 봉쇄 등에서 비롯됐다.

축우 사료 원료의 80~85% 비중은 수입산이 차지한다.

배합사료뿐만 아니라 건초나 짚과 같은 조사료 가격도 한꺼번에 뛰었다.

가축 사료로 널리 쓰이는 티머시 건초 kg당 가격은 지난해 말 기준 850원으로, 전년 중순(700원)보다 21.4%(150원) 올랐다.

사룟값 인상 영향으로 최근 1년 동안 축산 농가가 한우 한 마리당 부담하는 사료비는 90만원 넘게 증가했다.

30개월령 한우 거세비육우(고기소) 한 마리를 키울 때 배합사료 5500kg과 조사료 1800kg을 먹인다고 가정하면, 1년 전에 비해 배합사료 비용은 69만3000원, 조사료는 23만4000원 올랐다.

둘을 합하면 지난해 초보다 마리당 92만7000원어치 사룟값이 더 드는 셈이다.

사료비 인상으로 인한 축산농가의 경영 부담은 통계 지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통계청 '축산물 생산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한우 비육우 마리당 평균 사육비는 992만원으로, 전년(933만원)보다 6.4%(59만원) 증가했다. 이는 통계를 낸 2003년 이후 최대를 기록했다. 이는 사육비의 35.1% 비중을 차지하는 사료비(348만원)가 전년보다 6.5%(21만원) 늘어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사료비 역시 통계 집계 이래 가장 높았다.

축산 농가의 사료비용 부담이 역대 최고로 늘었지만 올 들어 한우 사육마릿수는 전년보다 5% 가량 증가했다.

거리두기 해제로 인해 한우 수요는 늘었지만 사육마릿수가 증가하면서 가격은 오히려 내림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1분기(3월1일) 기준 전남 한·육우 사육마릿수는 59만8000마리로, 전년 같은 분기(57만1000마리)에 비해 4.8%(2만7000마리) 증가했다. 마찬가지로 전국 사육마릿수도 337만3000마리에서 올 들어 351만마리로, 4.1%(13만7000마리) 늘었다.

이달 1일부터 24일까지 농협 나주공판장에서 거래된 한우 거세우 kg당 평균 경락가는 1만9137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2만1916원)보다 12.7%(-2779원) 하락했다.

가축시장에서 6~7개월령 송아지 마리당 평균 가격은 지난달 343만4000원으로, 전년 같은 달(414만6000원)보다 17.2%(-71만2000원) 하락했다.

더구나 올해 1~4월 쇠고기 수입량은 14만9858t으로, 전년보다 6.9%(9681t) 증가했다.

연말까지 전국 한우 사육마릿수는 전년보다 5.7%(19만2000마리) 증가한 356만마리가 될 것으로 예측되면서 농정 당국은 한우 암소 감축사업을 벌이고 있다.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부, 농협경제지주, 지역축협은 지난해 9월부터 오는 6월30일까지 새끼 낳은 소를 출하·도축하면 마리당 18만원을 지원한다.

애초 해당 사업의 신청 기간은 지난해 11월까지였지만 신청 마릿수가 목표(2만마리)에 턱없이 못 미쳐 두 차례에 걸쳐 연장됐다.

전남지역 감축 목표는 4000마리가 배정됐으며, 이달 현재 70%가량 신청이 접수된 상태다.

올해 들어 사회적 거리두기가 크게 완화되면서 가정과 식당에서의 고기 소비는 느는 추세다.

광주 이마트 3개 점포의 올해 1월1일부터 5월22일까지 한우 매출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13.9% 증가했다. 같은 기간 돼지고기 매출은 4.4% 증가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광주지방국세청 "적극행정 실천하자"

적극행정 코디네이터 임명

광주지방국세청(청장 이판식)은 25일 '적극행정 코디네이터'를 임명하고 적극행정 실천을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사진〉

이번 행사는 현장 중심의 도전적·창의적 적극행정 실천 및 소극행정 혁파, 적극행정의 공감대 확산을 위해 마련됐으며, 광주국세청 간부 및 적극행정 현장지원센터 직원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임명된 '적극행정 코디네이터'는 세정 현장의 적극행정 실천 제약 요인을 극복·개선하고, 광주국세청의 적극행정을 확산·안착시키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적극행정 지원제도 및 인센티브 안내, 현장 애로사항 수집, 우수사례 발굴 등 다양한 방법으로 현장과 소통·공감하는 창구로, 적극행정의 활성화에 나선다.

또 이번 결의대회에서 직원들은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불합리한 절차·규정이나 관행을 답습하지 않고, 직무태만 등 소극행정으로 납세자에게 불편을 주는 업무행태를 혁파할 것을 다짐했다. 이어 규정과 절차가 미비한 경우 사전컨설팅 제도를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납세자의 편익을 위한 창의적 정책 발굴에 나서기로 했다.

이판식 청장은 "광주국세청 직원 모두가 절차·규정이나 감사에 대한 부담 등에 구애받지 않고 각자의 자리에서 신속하고 과감한 적극행정을 펼칠 것이라 기대한다"며 "일 잘하고 유능한, 국민에게 신뢰받는 더 좋은 광주국세청으로 거듭나기 위해 모든 직원들과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

기아 창립 기념 '임직원 봉사 주간' 운영

걸으며 기부금 적립·플로깅·사업장 인근 묘목 기부 등

기아가 창립 기념일을 맞아 사회공헌 활동에 나선다.

기아는 창립 기념일(5월25일)을 맞아 지난 23일부터 다음달 5일을 '임직원 봉사 주간'으로 지정하고, 특별한 봉사활동 캠페인을 펼친다고 25일 밝혔다.

기아는 2015년부터 창립 기념 나눔 활동을 진행해왔으며, 올해는 '지속가능한 모빌리티를 통해 인류의 자유롭고 안전한 이동에 기여한다'는 기아의 사회공헌 미션 속 핵심가치인 '친환경'과 '모빌리티'을 함께 반영한 전사 임직원 참여형 프로그램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이번 임직원 봉사 주간은 걸음기록 플랫폼 업체 빅워크와 연계해 임직원 걸음 수에 따라 일정 기부금이 적립되는 '걷기 기부 캠페인'과 조깅을 하며 쓰레기를 줍는 플로깅 이벤트, 사업장 인근 생태환경 조성을 위한 묘목 3500그루 기부 활동으로 구성된 '친환경 참여형 봉사활동 캠페인' 등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특히 기아는 올해 '친환경 참여형 봉사활동 캠페인'을 추가함으로써 건강과 친환경에 관심이 높은 MZ세대의 참여는 물론, 임직원과 가족까지 함께 즐길 수 있는 사회공헌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아 관계자는 "글로벌 기업 시민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이번 친환경 임직원 나눔 캠페인을 진행하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매 창립 기념일마다 의미 있는 나눔 활동을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아는 지난해 창립기념일을 맞아 '임직원 걷기 기부 캠페인'을 실시하고, 캠페인을 통해 적립한 기금을 저소득 지체장애인을 위한 이동보조기구 기부에 활용한 바 있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

LX 광주전남본부 "청렴 문화 조성하자"

'이해충돌방지법' 정착 결의대회

LX(한국국토정보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본부장 김영욱)는 25일 '이해충돌방지법' 조기 정착을 위해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 이행 의지를 다짐하는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사진〉

지난 19일 전면 시행된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는 제도다. 공직사회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고 직무수행 시 사적 이익추구를 방지함으로써 청렴한 직무수행을 보장하는 장치가 마련된 것이다.

해당 법안은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신청,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고위 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직무 관련 자와의 거래 신고,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등 5가지 신고·제출 의무를 담고 있다.

아울러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 가족채용 제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직무상 비밀 등 이용금지의 5가지 제한·금지사항도 포함하고 있다.

김영욱 본부장은 "이해충돌방지법이 원활하게 운영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LX 이해충돌방지 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이어나가겠다"며 "더 청렴한 직무수행으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LX가 되겠다"고 밝혔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

고유가에 휘발유·경유 소비 대폭 감소

지난달 1735만5000배럴…전달보다 5.8% 줄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등의 여파로 국제 유가가 고공 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국내 휘발유·경유 소비량이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한국석유공사 석유정보 사이트 페트로넷에 따르면 지난달 국내 휘발유·경유 합계 소비량은 1735만5000배럴로 3월보다 5.8% 감소했다.

국내 휘발유·경유 소비량은 올해 1월 2199만6000배럴, 2월 1849만2000배럴, 3월 1842만4000배럴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또 지난달 휘발유·경유 소비량은 코로나19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던 지난해 4월(2124만7000배럴)과 비교하면 무려 18.3%나 급감한 것이다.

이처럼 경유·휘발유 소비가 줄어든 것은 고유가 여파로 풀이된다.

연초부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긴장이 고조되며 국제 유가가 들썩였고 이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군사 작전을 감행하자 3월 국제유가는 배럴당 100달러를 훌쩍 넘어 130달러 선을 넘나들었다.

이에 따라 국내에 유통되는 석유제품의 가격도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국내 경유 가격은 휘발유 가격을 뛰어넘은 데 이어 사상 처음으로 ℓ당 2000원 선도 돌파했다.

대한석유협회 관계자는 지난달 석유 제품의 소비량이 감소한 데 대해 "고유가가 큰 영향을 미친 것 같다"며 "게다가 5월부터 유류세 인하 폭이 확대되다 보니 휘발유나 경유 구매를 미루는 대기 수요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또 지난달 소비량이 지난해 4월보다 큰 폭으로 줄어든 데 대해서는 "지난해 4월에는 거리두기로 사람들의 이동이 많지는 않았지만, 자가용으로 이동하는 편이 안전하다는 인식 탓에 석유제품의 수요가 유지가 된 측면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고유가 상황이 지속되면서 정유업계에서는 유가 상승이 수요 위축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커가고 있다.

고유가 상황이 지속되면 장기적으로 소비 지출이 줄어들어 정유사의 실적 악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석유협회 관계자는 "고유가 상황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며 "유류세 인하 폭 확대 등의 영향으로 5월 소비량은 4월보다는 늘어날 것 같지만 크게 반등하기는 어렵다. 고유가에 따른 수요 위축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빗썸 투자 10명 중 6명은 MZ세대

1분기 20~30대 62.4% 차지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은 올해 1분기 투자자 중 20~30대 MZ세대의 비중이 62.4%를 차지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런 비중은 1년 전보다 13.4%포인트 늘어난 것이다.

연령대별로 30대가 44.8%로 가장 많았고, 40대는 21.3%, 20대는 17.6%, 50대는 12.6% 순이었다. 여성 투자자 비중도 40.2%로, 2021년(17.2%)보다 약 두 배로 늘었다.

1분기 가장 많이 거래된 가상화폐는 비트코인(14.6%), 리플(10.1%), 이더리움(8.6%) 순으로, 지난해와 같았다. 이들 세 종목에 대한 투자 비중은 지난해 23.7%에서 9.6%포인트 늘어난 33.3%였다.

세 종목에 대한 MZ세대의 1분기 투자 비중 역시 지난해 19.0%에서 32.9%로 늘었다.

빗썸은 "MZ세대의 가상화폐 투자성향이 보수적이고 장기적으로 변하고 있다"면서 "MZ세대는 가상화폐를 주요 투자자산 중 하나로 인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연합뉴스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617.22 (+11.35)
↑	코스닥	872.69 (+7.62)
↓	금리 (국고채 3년)	2.946 (-0.021)
↓	환율 (USD)	1264.60 (-1.60)